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삼달1리 삼달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고형근(남, 1937년생, 성산읍 삼달1리)

- 줄거리: 도깨비를 잡아서 보니 우장 코에 말똥봉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.

[제보자] 도체비는요. 그러니까 한 칠십 년 전에 우리 동네에도 도체비가 여기저기 잊어낫던 헙디다. 그 도체비 심어놨던 허는 사름도 있고, 도체비 심어보니까는 우장 코에 물 똥봉이 흐나 있더라. 그런 거 전설적인 내용인데. 도체비라는 것을 많이 들언.

도체비란 것이 여기 가면은 으스럭 헌디 가면은 있고, 또 어디 가면은 불. 불 벨롱벨롱 허는디, 아무 눈엔 안 보이고 보이는 사름만, 저거 도체비엔 허는디. 지금 말허믄 반딧불처럼 그런 것이 왓다갓다 허다가 흐나 잇다가 두 개 세 개 헷다가 네 개 헷다가 멀리 벌어졌당 또 흐나로 모아지고. 이것이 도체빗불인데,

도체빗불도 그러고 헛게비는 오유월 마 때에 캄캄하게 못 볼 에 사름이 다니다 보면은 그순새라고 헷어이 그 막 그 이상현 것처럼 보이는 그순새란 것도 잇는데.

어느날 저 그 사름 이름 뭐엿더라. 잊어비연. 그런 정도데 얼핏 생각에는 안 나는데, 도체빗불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. 어중헌 날 어중중헌 날 도체빗불 데 혜. 지금은 그런 거 없주만은, 도체비 보레 가자 헹 가면은,

“저 도체비 불 아니냐.”

허주만은 안 보이는 사름은 전혀 안 보여.

도체빗불은 어떻 엊어지냐믄 돌?^ㅋ릇 불 켜면은 도체빗불이 엊어진다. 그렇게 혜난 말은 들어봤어요.

- 핵심어 : 도체비, 도체빗불, 그순새, 헛게비, 돌?^ㅋ르, 귀신, 도깨비, 돌가루